21-09(통권 905호) 2021.03.19

경제주평

■ 국내 니트족(NEET) 현황과 시사점
- 니트의 장기화 예방이 시급하다!

현대경제연구원

목 차

■ 국내 니트족(NEET) 현황과 시사점

- 니트의 장기화 예방이 시급하다!

Executive Summary ····· i

1. 개 요 ····· 1

2. 국내 니트족(NEET) 현황 ····· 3

3. 시사점 ····· 8

<참고> 국가별 니트족(NEET)의 특징 ····· 10

□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총 괄 : 주 원 이 사 대 우 (2072-6235, juwon@hri.co.kr)

□ 경제연구실 : 이부형 이사대우 (2072-6306, leebuh@hri.co.kr)

류승희 연구원 (2072-6217, shryu@hri.co.kr)

Executive Summary

□ 국내 니트족(NEET) 현황과 시사점
- 니트의 장기화 예방이 시급하다!

■ 개요

최근 들어 국내 청년(15~29세) 실업률이 재상승하는 등 고용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면서 니트족(NEET; 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)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. 실제로 국내 청년실업률은 9%대에 이르렀고,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0% 중반대에 머물면서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. 아울러 OECD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 인구 중 니트족(15~29세 청년층 실업자와 학생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) 비중이 2017년 기준 18.4%(170.8만명)로 OECD 평균 13.4%를 크게 상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.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니트족 추이를 추정한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. 단, OECD와는 달리 '미혼'이면서 '쉬었음'에 해당하는 15~29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협의의 니트족을 추정했다.

■ 국내 니트족 현황

① 전체 니트족 추이

2010년대 중반 이후 니트족이 증가세로 반전,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면서 전체 청년층 인구 및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다. 2016년 약 26.2만명까지 하락했던 국내 니트족 규모는 이후 증가세로 반전, 2020년에는 43.6만명 수준으로 상승했다. 이는 전년대비 24.2%(약 8.5만명) 증가한 수준이다. 한편, 국내 니트족이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약 2.8%에서 4.9%로 2.1%p 상승했으며, 전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약 5.2%에서 약 9.1%로 약 3.9%p 급등했다.

② 성별 니트족 추이

남성 니트족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여성 니트족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. 2017년부터 남녀 니트족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2019년에는 남녀 니트족이 각각 15.1%, 13.7% 증가했으며, 2020년에는 동 24.7%, 23.6%로 증가세가 빨라졌다. 한편, 2020년 기준으로 남성 니트족 규모는 24.5만명, 여성 니트족 규모는 19.1만명으로 여전히 남성 니트족 규모가 크지만, 여성 니트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니트족 대비 비중이 30%대 중반 수준에서 약 43.7%까지 상승했다.

③ 학력별 니트족 추이

최근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니트족이 급증하면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졸 이하 니트족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.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규모는 2016년 약 17.2만명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나,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20년에는 약 27.5만명으로 증가했다. 동기간 고졸 이하 니트족은 약 9.0만명에서 약 16.1만명으로 약

7.1만명 증가에 그쳤다. 그 결과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비중이 2020년 약 63.0%까지 상승했다.

④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

니트족 가운데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없는 자(이하, 전직 경험 없음)와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인 자(이하, 무직 1년 이상)의 비중이 50%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상대적으로 장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이상 니트족은 2017년에 약 6.6만명 수준이었으나, 2020년에는 약 12.0만명으로 1.8배 이상 증가했다. 아예 전직 경험이 없는 니트족도 2020년 약 11.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, 무직 1년 이상의 니트족과 더하면 약 23.8만명으로 전체 니트족의 54.6%를 차지했다.

⑤ 학력별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

최근 들어 고졸 이하 니트족 중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자(이하, 무직 1년 미만) 비중이 확대되었으나, 전문대졸 이상은 축소되었다. 다만, 이들 모두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 비중이 50%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고졸 이하 니트족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자는 2020년 약 7.3만명으로 전체 니트족 대비 비중이 약 45.2%에 달해 2019년에 비해 약 7.8%p 상승했다. 반면에,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중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자는 2020년에 약 12.5만명으로 전체 니트족 대비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약 1.6%p 하락한 45.5%였다. 다만, 전체 니트족에서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 고졸 이하 54.8%, 전문대졸 이상 약 54.5%로 50%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시사점

니트족의 증가 및 이의 장기화는 니트족 자신의 생애소득 감소에 따르는 후생수준의 하락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부모세대 부담 가중, 각종 사회적 비용 유발, 노동투입량 감소 등에 따르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. **첫째,** 니트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현황 파악은 물론 그들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·연구 등을 통해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. **둘째,**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청년층 고용가능성(employability)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배려가 강화되어야 한다. **셋째,** 종합적인 청년층 실업대책 마련 등을 통해 니트족의 장기화를 예방함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. **넷째,** 성별, 학력 등에 따라 니트족의 특성도 달라지는 만큼 정책 대응 또한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. **다섯째,**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좋은 일자리의 창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니트족 후보군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.

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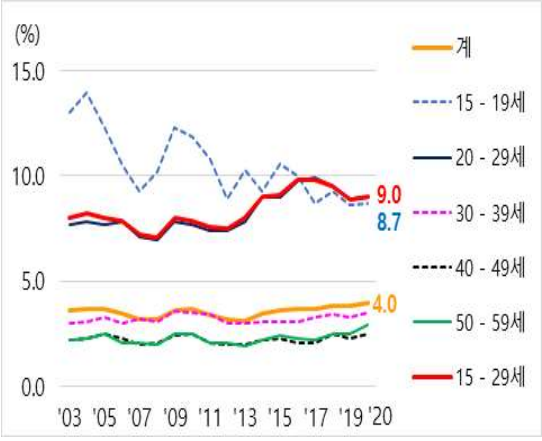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들어 국내 청년(15~29세) 실업률이 재상승하는 등 고용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면서 니트족(NEET)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

- 재상승하고 있는 청년실업률
  - 2010년대 초반까지 8% 이하 수준에 머물던 청년실업률은 이후 상승세로 전환, 최근 9%대 수준에 도달
  - 이는 타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임

- 상대적으로 저조한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
  - 2000년대 들어 40% 후반 수준까지 상승했던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최근에는 40% 중반 수준으로 하락
  - 2020년 기준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6.4%로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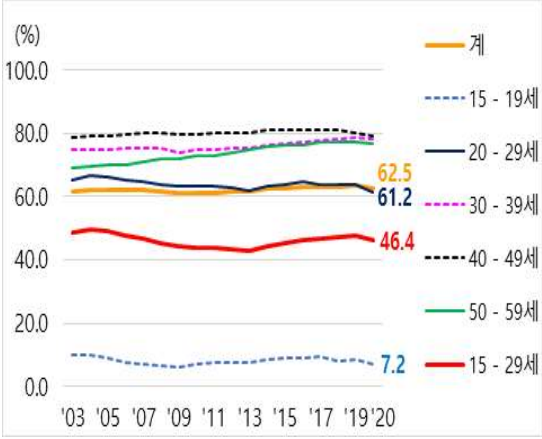
-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층의 니트족화도 크게 우려
  - 니트족은 Not in Education, Employment, or Training의 준말로 교육을 받지 않고,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,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청년을 말함

< 연령 계층별 실업률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.
주 : 계는 15세 이상 전체 연령층.

<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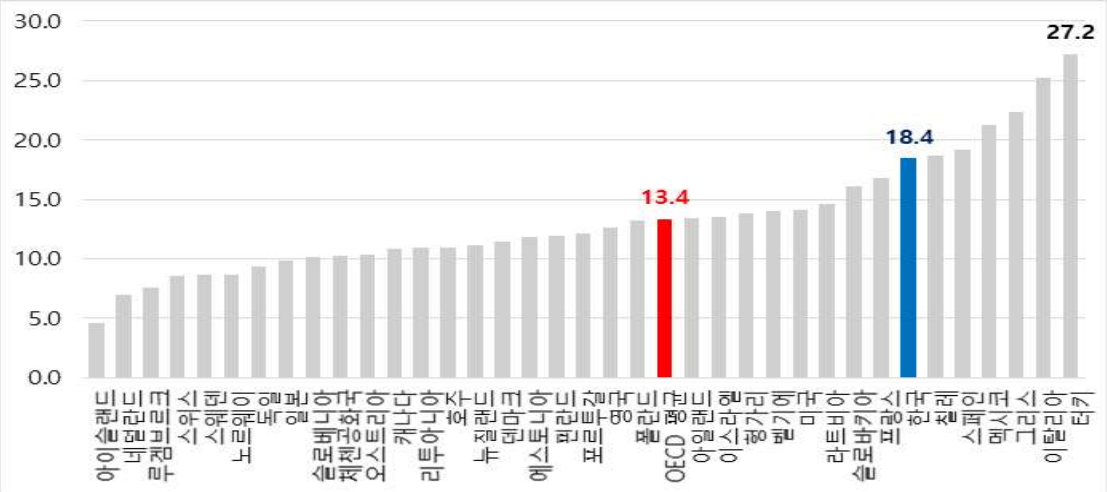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.
주 : 계는 15세 이상 전체 연령층.

○ 이하, 국내 니트족 규모를 니트족의 정의에 맞춰 OECD와는 달리 협의의 개념으로 추정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- OECD에서 회원국 대상 광의의 니트족 규모를 추정하여 발표[1)]
  - OECD의 경우, 전체 청년층(15~29세) 인구 중 취업자와 학생을 제외한 자를 니트족으로 분류
  - 즉, 니트족은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청년층이 되는데 '실업자+비경제활동인구-학생'으로 추정
  - 추정결과, 전체 청년층 중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17년 18.4%(170.8만 명)로 OECD 평균 13.4%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[2)]

- 국내 니트족은 OECD와는 달리 협의의 개념으로 추정
  - 본 고에서는 니트족의 개념에 따라 15~29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미혼이면서 육아나 가사, 통학, 심신장애, 취업 또는 진학 준비, 군입대 대기 등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에 해당하는 자를 니트족으로 규정
  - 따라서 본 고에서 추정대상이 되는 니트족은 미혼이면서 쉬었음에 해당하는 15~29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임

< OECD 기준 국별 니트족(NEET) 비중 비교(2017년 기준, %) >



자료 : OECD, Society at Glance 2019.

1) OECD는 니트족을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으로도 표기(OECD, Society at Glance 2019.)
2)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국내 15~29세 청년층 인구는 928.2만 명임.

2. 국내 니트족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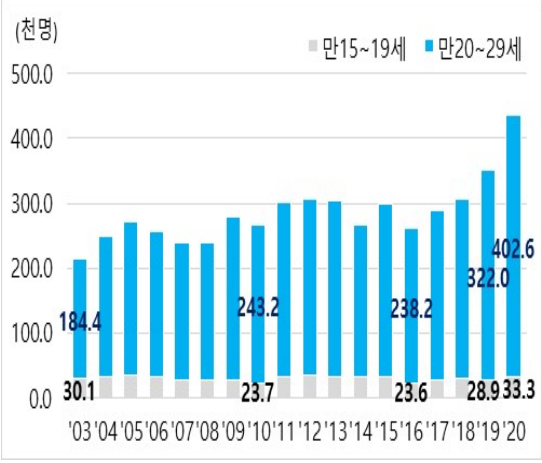
① 전체 니트족 추이

○ 2010년대 중반 이후 니트족이 증가세로 반전,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면서 전체 청년층 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

- 2010년대 중반 이후 니트족 증가세 반전
  - 2016년 약 26.2만명까지 하락했던 국내 니트족 규모는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2020년에는 43.6만명 수준으로 상승
  - 특히, 2020년에는 전년대비 24.2%(약 8.5만명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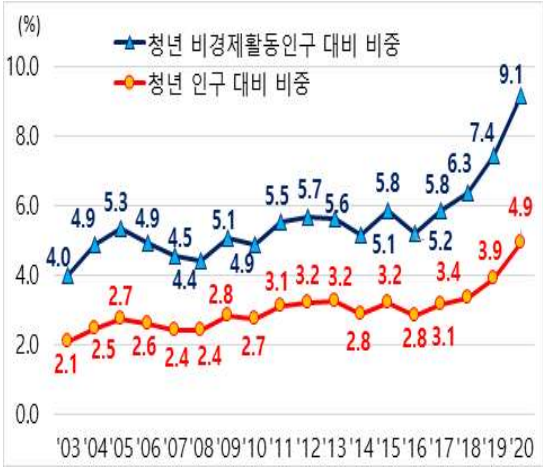
- 전체 청년층 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급등
  - 국내 니트족이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약 2.8%에서 2020년에는 4.9%로 2.1%p 상승
  - 한편, 국내 니트족이 전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약 5.2%에서 약 2020년 9.1%로 약 3.9%p 급등

< 니트족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주 : 니트족=15~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.

< 총 청년층 인구 및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니트족 비중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주 : 모두 15~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.

② 성별 니트족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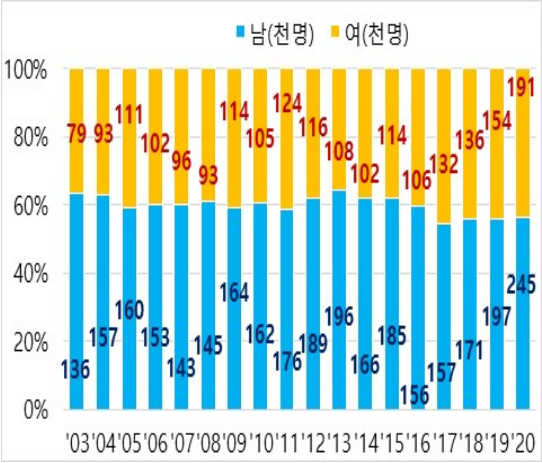
○ 성별로는 남성 니트족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여성 니트족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

- 남녀 니트족 모두 급증세
  - 2017년부터 남녀 니트족 모두 증가세로 전환, 특히 2019년에는 남녀 니트족 각각 15.1%, 13.7% 증가했으며, 2020년에는 동 24.7%, 23.6%로 증가세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남

- 여전히 큰 남성 니트족 규모
  - 2020년 기준 남성 니트족 규모는 24.5만명, 여성 니트족 규모는 19.1만명으로 남성 니트족이 여성 니트족에 비해 약 5.4만명 상회하는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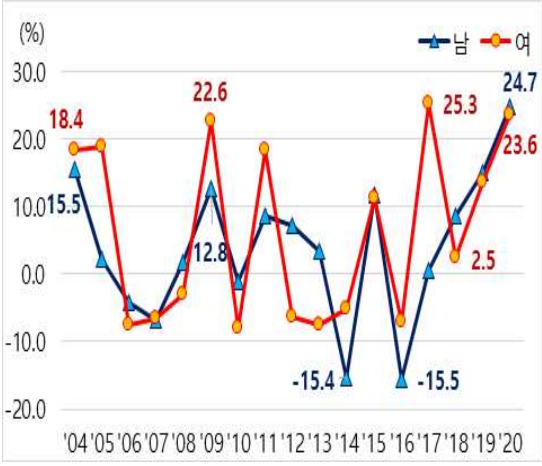
-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여성 니트족 비중
  - 10만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던 여성 니트족 규모는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, 2020년에는 19.1만명으로 급증
  - 그 결과, 여성 니트족이 전체 니트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% 중반 수준에서 2020년에는 43.7%까지 상승

< 성별 니트족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주 : 니트족=15~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.

< 성별 니트족 증감률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주 : 니트족=15~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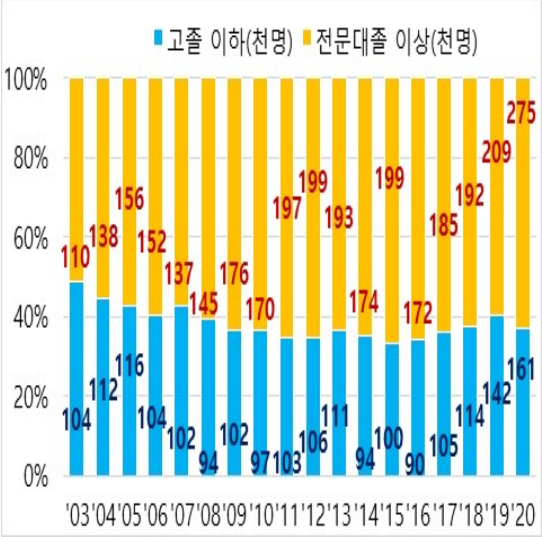
③ 학력별 니트족 추이

○ 최근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니트족이 급증하면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, 고졸 이하 니트족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음

- 상대적으로 급증한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
  -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규모는 2016년 약 17.2만명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나,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20년에는 약 27.5만명으로 약 10.3만명 확대
  - 고졸 이하 니트족 규모도 동기간 약 9.0만명에서 약 16.1만명으로 약 7.1만명 증가했으나, 증가 규모는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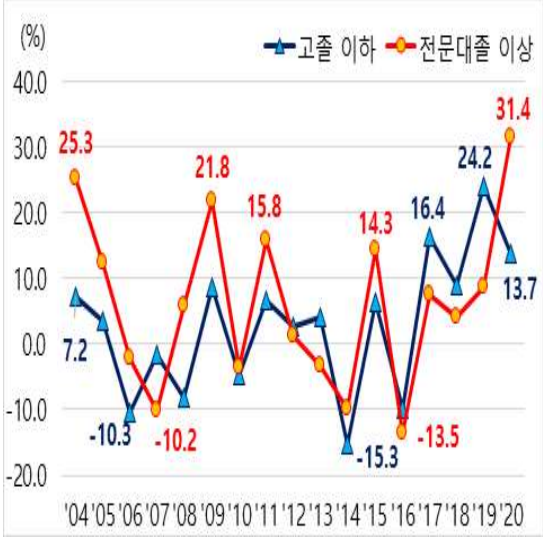
- 급격히 확대된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비중
  - 2020년 기준 고졸 이하 니트족과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의 증감률은 각각 13.7%, 31.4%로 나타나,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
  - 그 결과, 전체 니트족에서 차지하는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의 비중도 2019년 59.6%에서 2020년 63.0%로 상승

< 학력별 니트족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주 : 니트족=15~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.

< 학력별 니트족 증감률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주 : 니트족=15~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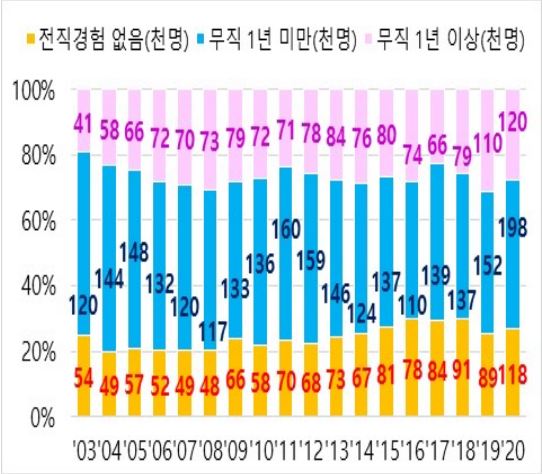
④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

○ 니트족 가운데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없는 자(이하, 전직경험 없음)와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인 자(이하, 무직 1년 이상)의 비중이 50% 이상 수준을 유지

-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자(이하, 무직 1년 미만)의 니트족 비중은 감소
  - ·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의 니트족은 2016년에 약 11.0만명 수준까지 감소한 이후 2020년에는 약 19.8만명으로 증가
  - · 이로 인해 동기간 무직 기간별 니트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.1%에서 45.4%로 소폭 상승했으나, 50% 중후반 수준을 유지했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보면 이는 크게 축소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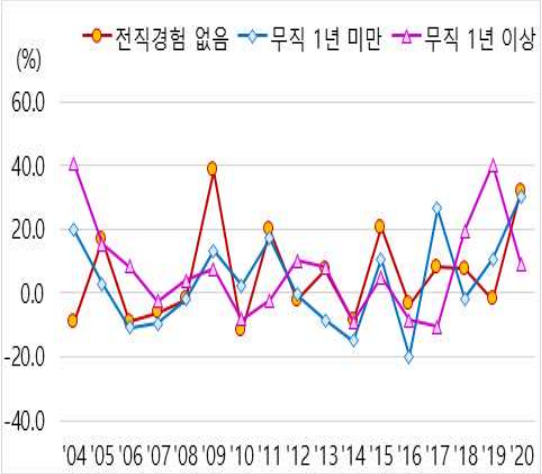
-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의 니트족 비중은 50%를 상회
  - · 상대적으로 장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이상 니트족은 2017년에 약 6.6만명으로 축소되었지만, 2020년에는 약 12.0만명으로 약 1.8배 이상 증가
  - · 아예 전직 경험이 없는 니트족은 2020년 약 11.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, 무직 1년 이상의 니트족과 더하면 총 약 23.8만명으로 전체 54.6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
<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주 : 15~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의 유무 및 휴직 기간별 구분.

< 무직 기간별 니트족 증감률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주 : 15~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의 유무 및 휴직 기간별 구분.

⑤ 학력별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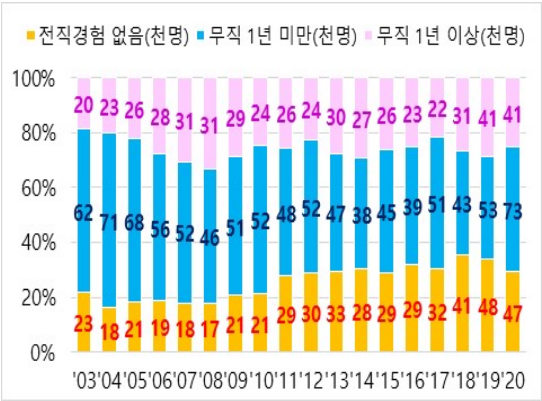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들어 고졸 이하 니트족 중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 비중이 확대되었으나, 전문대졸 이상은 축소

-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고졸 이하 니트족 비중 확대
  - · 고졸 이하 니트족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자는 2020년 약 7.3만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.2%로 나타남
  - · 이는 전년인 2019년 약 37.4%에 비해 약 7.8%p 상승한 수준

-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비중은 축소
  - ·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중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자는 2020년 약 12.5만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.5% 수준
  - · 이는 전년인 2019년 약 47.1%에 비해 약 1.6%p 하락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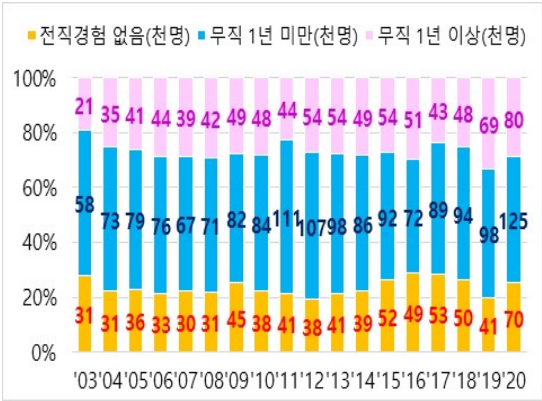
- 다만,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 비중이 모두 50%를 상회
  - · 고졸 이하 니트족 중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 비중은 2020년 기준 약 54.8%로 전년 약 62.6%에 비해 약 7.8%p 축소되었지만, 50% 이상 수준을 상회
  - ·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은 동 약 54.5%로 전년 약 52.9%에 비해 1.4%p 상승, 2014년부터 50% 이상 수준을 유지

< 무직 기간별 고졸 이하 니트족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주 : 15~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의 유무 및 휴직 기간별 구분.

< 무직 기간별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주 : 15~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의 유무 및 휴직 기간별 구분.

3. 시사점

○ 니트족의 증가 및 이의 장기화는 니트족 자신의 생애소득 감소에 따르는 후생 수준의 하락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부모세대 부담 가중, 각종 사회적 비용 유발, 노동투입량 감소 등에 따르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

첫째, 니트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현황 파악은 물론 그들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·연구 등을 통해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

- 니트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나, 그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

- 더군다나, 니트족의 실태에 대한 조사도 부족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

둘째,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가능성(employability)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강화되어야 함

- 정규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에 관한 청년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

- 이와 함께 각 지자체, 대학, 직업교육기관, 기업 등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직업연계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

셋째, 종합적인 청년층 실업대책 마련 등을 통해 니트족의 장기화를 예방함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

- 공공부문의 직업중개기능 강화, 직업교육훈련 등 실직 또는 무직 청년들에 대한 직업 탐색 기회 강화 등을 통한 고용 연계 기능 확대 등이 필요함

- 좀 더 적극적으로는 중소·벤처 또는 중견기업 등의 근로 환경개선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또는 기피 현상을 최대한 완화해야 함

넷째, 성별, 학력 등에 따라 니트족의 특성도 달라지는 만큼 정책 대응에 있어서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

- 니트족의 경우, 성별이나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특징이 있고, 니트족을 둘러싼 생활환경 등에 따라서도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

다섯째,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좋은 일자리의 창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함

-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좋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어 노동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임과 동시에 니트족 후보군 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니트족화의 궁극적인 예방책이기도 함HRI

이 부 형 이 사 대 우 (2072-6306, leebuh@hri.co.kr)
류 승 희 연 구 원 (2072-6217, shryu@hri.co.kr)

<참고> 국가별 니트족(NEET)의 특징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개념</th><th>특징</th><th>주요 영향</th></tr>
<tr><td>일본</td><td>학교에 다니지 않고,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,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15~34세 청년층</td><td>사회적 배제형, 고립형, 주춤형, 자신감 상실형, 대기형 등으로 나뉨</td><td rowspan="5">1. 니트족 자신의 생애 소득 감소
2.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·사회적 부담 가중
3. 각종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상승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
4. 잠재실업률 상승
5. 노동투입량 감소 등에 따르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</td></tr>
<tr><td>영국</td><td>학교에 다니지 않고,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,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16~18세 청년층</td><td>18세 이후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며 실업자, 사회복지급부 수급자, 약물 남용자 등 사회적 문제 유발</td></tr>
<tr><td>미국</td><td>은수저증후군(Silver Spoon Syndrome), 30세 이후에도 부모에 얹혀사는 경우가 많음</td><td rowspan="3">영국과 유사</td></tr>
<tr><td>스웨덴</td><td>아웃사이더(Outsider), 16~24세</td></tr>
<tr><td>캐나다</td><td>미국의 니트족과 유사</td></tr>
</table>

자료 : 이부형, ‘한국도 NEET족인 늘고 있다’, 현대경제연구원, 2005년 4월 20일, 가필·수정 및 재인용.